지역 메아리

김제시, 상반기 공공일자리사업 참여자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

김제시는 2일 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공공일자리사업인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및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고자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

공공일자리 사업은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일자리를 제공해 생계를 지원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재활용품선별사업, 벽골제 관광안내사업, 지역아동센터 어학강사지원사업 등 3개 사업장에 14명, 공공근로 사업은 장애인도우미사업, 국가암검진사업 등 47개 사업장에 89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날 교육에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북서부지사 김동광 부장을 강사로 초빙하여 각종 산업재해 사례들과 올바른 예방대처법 등에 대한 내용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김제시 관계자는 "근로현장에서 무엇보다 근로자의 안전이 중요하므로 건강관리와 안전사고에 주의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지속적으로 전문가를 초빙해 안전한 사업장 조성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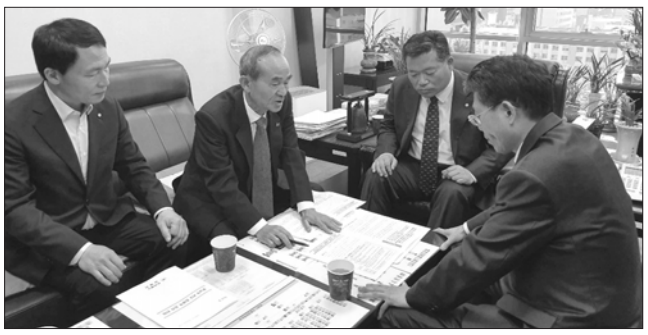
김제시, 국비확보 강행군

박준배 시장, 국토교통부 방문 지역현안 건의 · 정부 지원 요청

김제시 (시장 박준배)가 지역 현안사업 해결 및 국비확보를 위해 다각적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2일 김종회 국회의원실에서 국토교통부 김정렬 제2차관을 만나고 연이어 청와대를 방문해 김우영 자치발전비서관을 만나 '호남선 KTX 김제역 정차'를 설명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요청했다.

아울러 오후에는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우원식 의원 등 건의사업별 상임위원회 국회의원을 찾아가 지역 현안사업 해결 및 2020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빡빡한 일정을 이어갔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2일 국토교통부 김정렬 제2차관을 만나고 연이어 청와대를 방문해 김우영 자치발전비서관을 만나 '호남선 KTX 김제역 정차'를 설명하고 정부의 협력과 지원을 요청했다.

주요 건의사업은 호남선 KTX 김제역 정차, 용지 AI 대응 가금밀집지역 축사매입, 가족통합지원센터 건립, 새만금 특별관리지역지정 및 용지현업축사 매입, 지평선산업단지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재지정 등이다.

특히 김제역은 2004년 KTX 개통된 이래 2015년 호남고속철도 개통 전까지 KTX가 운행됐으나 호남고속철 개통 시 KTX 김제역 정차 운행이 배제돼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며,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추구하는 현 정부 핵심가치에 맞게 경부선 KTX 일반선로 동대구-밀양-구포-부산 16회 운행처럼 호남선 KTX 일반선로 익산-김제-장성-광주 12회 운행을 강력하게 건의했다.

박준배 김제시장은"시의 현안 해결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중앙부처와 국회 관계자들을 만나 예산확보 등 적극적인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 전방위적 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고산味소한우 한우숯불구이축제' 개최

완주군, 4일~ 6일까지 고산미소시장 광장서

완주군에서 질 좋은 한우를 마음껏 만나볼 수 있는 '한우숯불구이축제'가 열린다.

완주한우협동조합(이사장 조영호)이 '즐거운 우리가족, 한우 먹으러 Let's go'라는 주제로 오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고산미소시장 광장에서 '고산味소한우 숯불구이축제'를 개최한다.

완주한우협동조합은 완주의 200여 한우생산농가들이 설립한 단체로 생산과 가공, 유통, 판매의 전 과정을 직접 운영함으로써 유통비용을 최소화하고 있다.

지난 2016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네 번째를 맞이하고 있는 고산味소한우 숯불구이축제는 매회 2만명 이상이 찾는 등 지역의 유명 축제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올해 한우숯불구이축제는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한우쿠킹쇼, 시식회, 한우관련 이벤트 등의 다양한 부대행사와 할인행사가 펼쳐진다.

조영호 완주한우협동조합 이사장은 "수입육의 시장점유율이 늘어남에 따라 한우 소비량이 줄어들고 있고, 한우가격의 상승으로 소비자가 부담을 느끼는 것이 사실이다"며 "가정의 달을 맞아 소비자가 부담없이 한우를 접할 기회를 제공해 한우 소비를 활성화시키고자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며 관심을 당부했다.

/완주=이중복 기자

김제사랑장학재단 '김제사랑장학생 191명 선발

재단법인 김제사랑장학재단(이사장 박준배)이 김제 백년 미래를 이끌어갈 2019년 김제사랑장학생 191명을 선발했다. 장학재단은 2일 김제사랑장학생 선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통장자녀 장학생 5명, 특별장학생(다문화가정 자녀) 2명, 일반장학생(고등학생·대학생) 184명 등 총 191명을 선발, 3억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발한 장학생들은 성적우수 학생뿐만 아니라, 다문화 가정 학생 등 다양한 분야의 장학생들을 고르게 선발하여 수혜범위를 확대 시켰다.

이들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은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연간 120만원으로 김제지역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 한하여 지급되며, 대학생의 경우에는 김제지역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학생에게는 성적에 따라 연간 300~600만원을 4년 동안 지급하게 되지만, 김제를 벗어난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학생에게는 연간 300만원을 지급하되 신청한 당해연도만 지급된다.

최니호 상임이사는 "장학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과감한 장학금 제도 등 다양한 장학사업을 통해 관내 고교진학률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봉동생강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추진

완주군, 농업인 · 교수 구성 추진위원회 발대식 가져

완주군이 1000년의 역사와 전국 최고 품질을 자랑하는 봉동생강의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을 추진한다.

2일 완주군은 군청 소회의실에서 봉동생강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을 위한 추진위원회 발대식을 가졌다.

추진위원회는 생강농업인, 대학 교수 등 30여명으로 구성됐으며, 군은 지난 2017년부터 봉동생강을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 받기위한 준비를 해왔다.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제도는 보전할 가치가 있는 농업유산을 국가가 지정해 관리하는 제도로 기본계획을 6월중 전북도에 제출하면 현장심사 및 발표심사를 거쳐 올 연말 최종 지정 여부가 확정된다.

봉동은 한국 최초의 생강 시배지로써 허준의 동위보감을 비롯한 역사서에서 지속적으로 입증되어 왔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는 '봉상생강'(봉상은 봉동의 옛 지명)이 '전라북도 완주군에서 나는 생강. 품질이 매우 좋으며 식용하거나 약용한다'고 등재돼 있을 정도다.

특히 봉동의 생장 저장 시스템 '생강굴'은 고온성 작물 생강의 씨종자 보관에 관한 민간지식의 정수로 저장기능을 높이 평가받고 있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봉동 생강은 근대적 생산 및 유통 시스템으로 생강 생산량 증대와 유통망 개선으로 농가 수입의 혁신적 성과를 거둬 전국에 명성을 떨쳤다"며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을 통해 역사적 자원의 보전과 명성 회복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완주=이중복 기자

김제시, 농산물 명예감시원 정기교육 실시

김제시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는 2일 농업기술센터 3층 강당에서 농산물 명예감시원 23명을 대상으로 상반기 3차 정기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농산물 명예감시원 교육은 지난 1월과 2월에 이은 3차 교육으로, 주기적인 교육을 통해 명예감시원의 역량 및 민간 지도 기능 강화를 위한 것이다.

김제시는 올 초 23명의 농산물 명예감시원을 위촉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농산물, 수입농산물, 가공품 등을 중심으로 월 2회 활동을 펼쳐 321개소에 대한 올바른 「원산지 표시」 지도 및 홍보 활동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어린이날, 고산자연휴양림 무료로 이용하세요"

완주군, 오전 9시~ 오후 6시까지

어린이날, 완주 고산자연휴양림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2일 완주군은 5일 어린이날 입장객에 대한 입장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고산자연휴양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입장이 가능하며 에코어드벤처, 무궁화오토캠핑장, 만경강수생생물체험과학관, 무궁화테마식물원, 산림바이오매스 홍보관 등 다양한 체험과 볼거리가 가득하다.

만경강에 서식하는 물고기와 곤충, 수생식물을 직접 관찰 할 수 있는 만경강수생생물체험과학관은 어린이들이 흥미와 재미를 느낄 수 있는 퀴즈 게임과 3D체험관, 4D상영관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다.

어린자녀와 부모님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가족체험시설인 에코어드벤처 손오공(어린이), 저팔계(청소년 및 성인) 코스를 운영하고 있고, 매년 많은 체험객들이 다녀가고 있다.

시설은 고산자연휴양림 홈페이지에서 사전 인터넷 예약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무궁화테마식물원에는 봄꽃이 만발해 평소에 볼 수 없었던 온대?아열대 식물이 있는 온실이 조성돼 있다.

이외에도 고산자연휴양림내 산림교육센터에서는 숲 체험 프로그램 등 산림교육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하고 있어 산림교육도 받을 수 있고, 숲 해설가를 통해 숲에 대한 이야기도 들을 수도 있다.

최우식 산림녹지과장은 "어린이날 숲에서 마음껏 뛰어놀고 다양한 체험을 통해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완주=이중복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